

보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발행·편집인: 鄭昭永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의3
골든오비스텔 4층 411호
TEL: (051)245-7551~3, FAX: 245-7550
인쇄처: 釜山日報社
在荷同窓會-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45-20 동북빌딩 504호
T: (02)783-0071~2 F: (02)783-0073

야망의 25회 “접경사” 테니스 골프 2관왕

용마테니스대회... 다크호스 제20회 준우승

제25회동기회가 5월 30일 열린 동창회장기쟁탈 제24회 용마테니스대회에서 다크호스 제20회를 누르고 대망의 패권을 쥘 수 있었다. 제25회는 같은 달 17일 열린 제2회 용마골프대회에서도 단체 우승, 올해 기벌대항대회 2관왕의 영광을 누렸다.

농촌 제26회는 3위, 제28회는 4위에 그쳤다.
또 개인상은 황기철동문(25회)이 최우수상, 장준식동문(20회)이 우수상, 신재호동문(26회)이 감투상, 문정숙(26회 장원용동문 부인)씨가 미기상, 한규설동문(1회)이 모범선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특히 이날 칠순이 넘는 한규설동문(1회)은 후배동문 및 가족들과 어울리기 위해 서울에서 단신 참석, 4계

례로 열렸다.
이 테니스회장은 대회를 통해 “용마테니스대회는 각 동기회 집행부의 노력으로 해가 갈수록 참여 동

기회가 늘고 있으며 용원의 열기도 뜨겁다”며 “저변화대와 알찬 대회를 통해 동창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동문·가족의 유대를 더욱 튼튼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본부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용마테니스대회의 활성화는 본부동창회의 조직 강화에 직결된다”며 “테니스회 집행부는 앞으로 각 동기회의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동문·가족의 참여 폭이 넓어지도록 노력하고 대회가 더욱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상식에 이어 벌어진 뒤풀이는 인근 ‘육고기뷔페’에서 열렸고 일행은 채경석동문(20회·오복간장 대표)과 조광제동문(28회·대선약국 대표) 등이 관조한 기념품과 행운상 등을 한 이름씩 안고 귀가했다.



기벌대항 테니스대회는 용마가족의 화합과 결속을 확산시킨다. 사진은 5월 30일 부산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구장에서 열린 제24회 용마테니스대회 경기장면.

황기철 (25회) MVP 영광

칠순 한규설선배(1회) 서울서 단신 출전 “환호”

이날 오전 10시 부산 사하구 신평 지하철역 앞 신평레포츠공원 테니스장과 인근 대성산업 테니스장에서 열린 대회는 임원 선수 응원동문 및 가족 등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열한 대전을 벌였다.
결승전에서 제25회 A팀은 힘의 경기를 벌이며 강력히 추격해온 제20회를 2:1로 따돌렸다. 결승행 티켓을

임을 모두 지르며 건강을 과시했다.
또 제32회는 동문·가족 20여명이 참석, 열렬한 응원 속에 입상을 노렸으나 역부족으로 소망을 달성하지 못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기념식은 우승기 반환에 이어 이항우용마테니스회장(18회) 대회사, 정소영본부회장(6회) 격려사, 선수대표 선서 등 차

초원의 향연...골프대회 대성황



5월 17일 열린 용마골프대회에서 기벌대표가 샷을 날리고 있다.

동창회장배쟁탈 제2회 기벌대항 용마골프대회(주최 본부동창회·주관 제16회동기회)가 5월 17일 오전 9시부터 부산 동래 베네스트 G.C에서 열려 단체우승은 제25회동기회, 개인우승은 오충환동문(17회)이 차지했다.
이날 대회는 22개 동기회 1백64명의 골퍼들이 출전, 41개조로 나뉘어 인·아웃 동시 출발로 진행됐다.
우승의 영광을 안은 제25회는 마지막 조에서 79타를 치며 분전한 이동호동문(25회)의 귀환으로 역전드라마를 연출했다.
강력한 우승후보로 떠올랐던 제19회는 3백27타로 지난해 첫 대회에

제25회 왕중왕
개인우승 오충환(17회)
최고령 참가상 조대제(7회)
행운대상 여성렬(17회)

이어 연속 준우승, 제27회는 3백28타로 3위를 마크했다.
이날 오후 4시 동래그늘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鄭昭永본부회장(6회·정소영치과의원장)은 단체 및 개인상 시상식에 이어 동래 베네스트 G.C 측

에 감사패를, ‘용마대회’가 뜻있게 치러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준 클럽 종사자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초대제본부부회장(7회)은 최고령 참가상을, 여성렬동문(17회·서면골프 대표)은 행운대상(1백만원 상당)을 각각 수상했다.
개인전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우승=오충환(17회) ▷메달리스트=이범경(13회) ▷준우승=정성훈(29회) ▷3위=석무관(19회) ▷4위=여철우(24회) ▷5위=황맹균(29회) ▷근접상=오양득(25회) 신상건(19회) ▷장타상=김영대(17회) 박해성(24회).

21C 정보화 창조기업— 부산광역시 서구 토성동 2가 16-5번지 Tel. 245-9558/9 Fax. 254-0593

KUKJE 국제미디어 (주)
정보통신1등급 / ISO-9002인증획득 / 전자조합등록 업체

대표이사: 김수연
부사장: 최경균(12회)

■ 종합 방송
• HK SPEAKER • DAS SPEAKER
• SOUNDSPHERE • 무통설비

■ 종합 영상
• 무대/조명 • CCTV
• CATV • SECURITY

■ 시청각
• 멀티미디어 • 어학실
• 주차관제 • I. B. S

경남중학교 본사

FILA 세계인의 이탈리아 스포츠 캐주얼
FILA 느껴보십시오!
그 화려한 예술과 칼라의 세계를

FILA CLASSIC
FILASPORT

● 최정림 (21회)
● 최우림 (24회)
● 최경림 (30회)

힐라 고정대리점
TEL. 203-7241
203-7196

동문 우대 할인·단체주문 가능

대터널↑ 신세화백회점 고정점
부산은행● 주택은행●
하단↓ FILA 고정점

시 평

김영국

제9회 진영여자중학교 교감



어떤 일에 있어 성공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은 특출한 재능이라기보다 굳은 목적의식이다. 그것은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 뿐 아니라, 정력적으로 참을성 있게 일을 하려는 의지인 것이다.

목적의식을 지니는 것, 즉 입지(立志)와 관련하여 스마일즈는 다음과 같은 말을 일러준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또는 하고자 하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의지, 즉 목적의식의 힘이다."

어느 성인은 늘 이런 말을 했다. "그대가 마음 먹으면 될 것이니 하늘의 뜻에 우리의 의지력이 합쳐지면 가능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진지하게 그리고 참다운 의지로 소망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룰 수 있다. 진실로 복종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너그러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다." 희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자.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문제를 대하게 되는 것이다.

자아를 바르게 인식하고 희망을 가지면 어떤 난관도 문제될 것이 없다. 희망 하나만 굳게 지키면 겉으로 보기에 분명히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앞날에 대한 강한 기대를 수반하는 입지(立志) 그 자체가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소망과 지향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선봉 역할을 한다.

이와 반대로 소심하고 주저하는 자들은 오직 그것이 불가능하게 보인다는 이유로 모든 일을 포기하게 된다. 곤란에 부딪혀 용기가 꺾이고 폭풍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있는가? 이런 자는 큰 일을 못하리라. 정복하려는 의지로 부푼 사람이 있는가? 이런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리라.

존 헌트의 말이다. '현명하고 활동적인 사람은 곤란을 극복하니 용감히 곤

인간의 목적의식

“앞날에 대한 강한 기대를 수반한
立志 그 자체가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어느 목수가 치안담당 판사의 의자를 유달리 정성을 다하여 수선을 하고 있었다. 그 정성이 ऐसा롭지 않아서 옆에 있던 사람이 까닭을 물었다. 그랬더니 목수가 말하기를 "내가 장차 이 자리에 앉게 될 때 편히 앉으려고 그러는 것이요"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뒷날 그 목수가 그의 말대로 치안담당 판사가 되어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이다. 희망은 이처럼 소중한 것이다. 마치 장차 자기가 앉게 될 자리를 꿈꾸며 일하는 사람처럼

란에 부딪히기 때문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힘든 일과 위험을 보고 떨며 뒷걸음질을 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불가능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로우의 말이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말했다. '가장 참된 지혜는 굳은 결심이다.' 확고한 지향적 의지(意志)에 따라 인생의 걸음걸이가 판이하게 달라진다.

동문들이여, 어떤 곤란도 어떤 문제도 극복하려는 목적의식만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

“용마가족 성원에 반드시 보답”

한중문(14회)
롯데지언츠 사장

“용마가족을 비롯한 팬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롯데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중간에 부임해 영광 속에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최근 롯데지언츠구단 사장에 취임한 한중문동문(14회·사진)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터운 한홍식 전임사장의 뒤를 이어 시즌 중간에

부임해 전임자의 업적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한중문은 “고려대를 나와 71년 롯데제과에 입사한 이래 줄곧 제조업분야를 맡



아왔으나 롯데지언츠가 설립된 이던 시절부터 팬으로서 관심을 가져 왔기 때문에 낯선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마다 스포츠전문지 2개 이상은 정독할 정도로 야구를 좋아하는 한중문은 팀의 지방원정도 빠지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야구와 친숙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올해 명문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한중문은 정본산업 대표이사사와 롯데쇼핑 포장사업본부 대표이사 등을 역임.

얼굴

이태창(15회)
법무연수원장 발탁



이태창동문(15회)은 광주지검 검사장 재임 중 6월 7일 고검장 승진과 함께 법무연수원장에 발

탁됐다. 이동문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사법시험(9회)에 합격한 이래 법무부 보호과장 대검 공안기획담당관 서울지검 특수3부장 서울동부지청장 대검 강력부장 춘천·창원·광주 지검장 등 역임.

정홍원(17회)
대검 검찰부장 기용



정홍원동문(17회)은 광주고검 차장검사 재임 중 6월 7일 대검 검찰부장으로 영

진했다. 정동문은 성균관대 법대 졸업 후 사법시험(14회)에 합격한 이래 부산지검 부장검사 서울지검 특수3.1 부장 대검 중수3과장 대전 차장검사 울산지청장 부산1차장검사 서울3차장검사 서울남부지청장 광주 고검 차장검사 등 역임.

한광수(18회)
대검 형사부장 영진



한광수동문(18회)은 제주지검 검사장 재임 중 6월 7일 대검 형사부장으로 영진

했다. 한동문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사법시험(10회)에 합격한 이래 수원 및 대구지검 부장검사 서울동부 및 남부지청 부장검사 제주지검 차장검사 부산동부지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대전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 검사장 등 역임.

‘부산중소기업인 대상’ 우수상

차상영(16회)
동양제강 사장



세계 최고의 선박용 로프 및 어망을 생산하고 있는 부산의 향토기업인 동양제강 대표 차상영동문(16회·사진)은 5월 26일 부산시가 지역중소기업의 활성화 및 자기진작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제정한 「제1회 부산중소기업인의 날」에 우수상을 수상했다.

차동문은 선박용 로프 및 어망을 50년간 생산해 온 이 방면 베테랑. 그는 자체 기술로 개발한 생산기계를 통해 단위공장으로는 세계 최고인 연간 6천의 8연 로프(8가닥 꼬인 로프)를 생산, 80%이상 수출해 '세계 수위'를 자랑하고 있다. 그는 △로프 생산기계 기술 개발비 연간 10억원 투자 △8연 로프 개발 투자 확대 △지난해 로프업계 최초 'ISO 9002 인증' 획득 △국내 최대 4연 로프 제조설비 구축 △천만불수출탑 수상(95년) △중소기업 우수제품 마크 생산업체로 육성시켜 지난해 2백11억원(수출 1백37억원)의 매출을 올려 동양제강을 '막강한 향토기업'으로 도약시켰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나온 차동문은 동기회 회장 등을 맡아 동기회 기반구축에 남다른 헌신을 했고 동창회 활성화에도 묵묵히 앞장서 오고 있다.

오복간장 ‘항가’ 미국 처녀 수출

채경석(20회)
오복간장 사장



‘장류 50년 전통’을 자랑하는 부산의 전국적 향토기업인 오복간장 대표 채경석동문(20회·사진)이 최근 국내 업체로서는 최초로 미국 시장에 ‘오복간장’을 수출, 독점하고 있는 일본의 ‘기꼬망’에 도전장을 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식품업계선 유일하게 간장 원장 고추장 등 5개 장류 부문에서 KS마크를 획득한 채사장은 올들어 △컴퓨터 2000년 표기(Y2K)문제 우수 중소기업표창 수상 △99 생산성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전국 식품업체로서는 유일) △오복간장 미국 처녀수출 성공 등으로 삼중 경사를 맞았다.

채동문은 KS마크의 최고급 양조간장 ‘항가’ 2백박스(5천달러 상당)를 국내업체 최초로 미국시장에 첫 수출, 독점하고 있는 일본의 ‘기꼬망’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올해 수출목표는 3백만달러. 98년 1월부터 종합계획을 추진해 1년 2개월만인 올해 2월에 전체 정보시스템을 완성했고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구축에 심혈을 쏟고 있다.

채동문은 동기회는 물론 동창회 전반에 걸쳐 헌신해 오고 있다.

제5회동기회 임원·회원 일동

회장
李文基

회원
姜吉秀
姜周碩
姜太遠
孔鎭一
金殷奎
金成出
金永昊
金興胃
金熙水
金政奎
金鎭萬

金武福
金秉武
金性載
金智聲
金昌南
金戊坤
金海東
金仁澤
金均度
金榮道
金榮浩
金泰洙

金潤德
金定泰
金鍾健
金炯大
盧在銀
文潤庭
文正淳
文翰圭
朴炳仁
朴奉植
朴命浩
朴章厚

朴正午
朴眞佑
朴相潤
朴讚燮
朴泰榮
裴基武
裴春燮
卞東昌
尙基中
成贊永
宋斗成
宋珍漢

申鉉五
嚴基東
王成殷
禹明洙
禹昌雄
劉炳漢
俞鎭漢
尹明浩
尹星琦
尹性浩
李光洙
李榮允

李愚鉉
李遺燮
李在哲
李在鉉
李太申
李洪雨
李景玉
林尙澤
林外澤
任正元
林聖業
林采煥

張錫元
鄭嘉謀
鄭九泳
鄭奎謀
鄭吳璘
鄭萬吾
鄭龍澤
鄭泰源
鄭寅漢
鄭熙俊
丁壽榮
趙吉濟

池用來
陳道榮
崔庚出
崔三柱
崔容植
崔元球
崔雲洙
韓惠愚
黃明化
黃輪性
黃良炫
黃柱濼

'死地탈출' 39회 처녀우승

재경 기별야구 제24회에 9회말 재역전극 24-23

5월 30일 한빛은행 수유리아구장에서 폐막된 재경동창회 주최 제31회 기별대항야구대회 결승전에서 패기의 제39회가 막강 제24회를 24-23로 물리치고 처녀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올해 대회는 4월 25일 중앙대 안성캠퍼스에서 제39회-제41·43·45회 연합팀의 첫 경기로 시작된 후 장장 6주간의 레이스를 벌이고 이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박진감 넘치는 한판 승부를 연출한 제39회는 제24회의 '불방망이'에 혼쭐이 난 가운데 6회말 11-12로 바짝 추격했으나 7회초 다시 3점을 내주고 11-15로 꼴이 크게 패했다.

제39회는 7회말 1아웃 주자 만루에서 신동환의 우익수 평범한 땅볼을 상대 외야진의 실책으로 주자 일소, 14-15로 다시 1점차로 꼴을 좁혔다. 그러나 이상의 박현수가 각각 내야플레이와 삼진을 범해 만루찬스를 놓쳤다.

제39회는 8회말에 '승리의 신'을 에감했다. 1아웃 주자 2, 3루에서 신

동환이 2루타를 터뜨려 주자일소해 극적 동점을 이뤘고, 즉시 안타 등이 터져 대거 7득점, 21-17 대역전극을 연출했다.

이 무렵 방향각각을 잃은 듯한 제24회는 9회초 특유의 '불방망이'를 가동시켰다. 저력은 대단했다. 녹초가 된 타봉에 '기'를 붙여넣어 6점을 전전내 23-21 재역전극을 연출했다. 야망에 불타는 제39회는 좌절하지

않았다. 패기에 마지막 불을 붙였다. 9회말 2점을 뽑아 동점을 만들었고, 눈감쩍힐 사이 3루주자가 홈으로 달려들었다.

이때 주자는 포수와 충돌. 연장전을 예상했으나 그만 포수가 공을 놓쳐버렸다. 순간 제39회는 일제히 합성을 질렀다. 우승의 감격을 눈앞에 둔 제24회의 절망감이 땅을 꺼지게 하는 듯했다.



재경동창회 제31회 기별야구대회 폐막식에서 제39회동창회 대표기 기별야구의 우승총회장(14회)으로부터 우승기별 받고 있다.

“직능회 결성 적극 지원” 결의

제9회 회장단 회야... 기우회·산악회 출범

제9회동기회는 5월 19일 김해시 진영 근교 용담 산호정(윤일명동문 운영)에서 회장단회의를 열었다.

임종호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은 김성우 김영곤 윤일명 전국조 전인규 부회장과 최성욱총무 등이 참석, 동호회(바둑·등산)모임 결성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동기회 활성화를 위해 동호회 결성을 적극 권장,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충북 마니산서 경부단합대회

제30회동기회 1박2일 즐거운 만남

제30회동기회는 5월 15일 충북 영동군 양산면 마니산 관광농원에서 1박2일 일정의 경부합동산행대회를 개최했다.

최거훈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은 43명의 동문이 참석, 졸업20주년 기념 행사 이후 3년만에 동기생들이 재회해 친목과 단합을 과시했다.

15일 오후 3시 관광버스로 부산역을 출발한 부산의 동문들은 오후 6시 30분 영동에 도착, 재경동기회(회장

경구산악회는 26일 각각 창립기념행사를 치렀다.

경구기우회 창립 초대회장 화태진 기념바둑 우승 차진한

제9회동기회 경구기우회 창립총회 및 기념 친선바둑대회가 5월 22일 오전 10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동기회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26명의 동문이 참



석, 화태진동문(화태진특허법률사무소장·사진)을 초대회장으로 선출했다. 화신임장은 박호일동문을 간사로

지명했다. 이어 벌어진 친선대국에서는 우승 차진한(3급)·준우승 길영표(3급)·장려상 박호일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한편 공식대국은 매월 1회씩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경구산악회 발족 초대회장 한동대 금정산서 창립등반대회



제9회동기회 경구산악회 창립총회 및 기념 등반대회가 5월 26일 18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금정산에서 열렸다.

산행 후 총회를 통해 한동대 동문(한대대신경정신과의원장·사진)을 신입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산행은 범어사~북문~동문~온천장 코스를 택해 심신을 단련했다. 일행은 동래관광호텔에서 맥주파티를 하고 헤어졌다. 또 정기등반은 매월(둘째주 수요일과 마지막주 수요일)에 하기로 결정했다.



졸업 4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를 맞은 제13회 동문들이 은사들과 함께 원형교사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3회 졸업 40돌 홈커밍

전국 동문 1백여명, 은사 초빙 한자리에

제13회동기회 졸업 4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가 5월 8일 오후 3시 경남고 국산기념관에서 초빙은사를 비롯해 동문 1백여명과 본부 동창회 임원다수 등 모두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장 청회장과 김종각재경회장이 공동 주재한 이날 제1부 기념식은 강귀동동문의 사회로 동기회기(김승언 총무) 및 은사(김재정·김계곤·박정혁·이형기) 입장이 있는 후 김재정동기회장의 개회선언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은사 및 내빈 소개, 경과보고, 장 청동기회장 인사말, 김봉길 경남고 교장(8회) 환영사, 김재정은사 회고사, 정소영 본부회장 격려사가 있었다.

이날 한병조교문과 김승언 총무가 본부회장 공로패를, 장 청회장·김종각재경회장·최경창 재경동기회 총무 등이 모교 교장 감사패를 받았다. 기념사업으로는 은사 사은품, 모교 도서기금(중학교 1백만원, 고교 2백만원), 재학생 기념품 증정(전교생 노트), 모교 교직원 격려금, 동창회 장학기금(3백만원) 등이 전달됐다.

장 청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저마다 가파른 길, 고단한 길을 굽이굽이 돌아 이제 인생 육십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회고한 후 “首丘初心이란 말이 있듯이 만 40년을 되돌아 추억의 고향을 찾아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서니 감회가

깊으며, 耳順의 경지에 이른 지금이 야말로 인생의 황금기에 들어섰으니 남은 여생을 모두 뜻있고 보람있는 일들을 여는데 동참하자”고 말했다.

1부 기념식은 은사 및 내빈과 함께 그날의 손때가 묻은 원형교사 앞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끝으로 폐회했다.

2부 기념식은 서구 동대신동 산정(이범경동문 운영)에서 열렸다. 동기생 전원은 은사와 정본부회장, 최득호본부사무국장, 김병수본부총무 등을 초대한 가운데 회식과 밴드의 반주 아래 각 반별 노래자랑을

“首丘初心...보람의 여생을” 不夜城 해운대 ‘서울팀’ 누벼 동창회 장학기금 3백만원

벌였고 푸짐한 상품 및 기념사진 촬영이 있었다. 밤 9시 이후는 해운대 한국콘도에서 은사와 서울 동기생 전원 및 부산동기생 40여명이 횃집과 노래방에서 회포를 풀고 일박했다. 다음날 10시경 자갈치 횃집에서 은사와 30여 동문이 모여 아침겸 점심을 먹고 서울팀은 횃기리를 준비해 상경했다.

이날 1부 기념행사에는 정본부회장과 국회의원인 정문화(13회) 한이현동문(16회)이 화환을 기증, 축하했다. 또 옥윤석 경총회 간사(16회)와 제23, 33회 회장 총무 등이 참석해 행사를 뜻깊게 했다.

수원지역 율레회 “가족 같은 동창회로”



수원지역동창회는 5월 13일 오후 7시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명가'에서 격월례회(홀수달 둘째주 목요일)를 열고 우정을 다졌다.

최윤락회장(13회·삼성생명 부천영업소 부장·사진)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15명의 동문이 참석, 지역회 조

직강화를 위한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모두 앞장서지”며 “가족 같은 동창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지역회는 지역 특성상 서울에 거주하나 회사가 수원에 있는 경우와 수원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직장이 있는 등 반쪽생활을 하는 동문이 많아 정기모임을 격월로 열고 있다.

제6회동기회 임원·회원 일동

회 장	총 무	具河書	金瑛坤	文亨昉	裴文守	李相麒	鄭世東	崔甲永
林警澤	崔炳守	琴 瑛	金溶澤	朴基英	徐鳳吉	李石雨	鄭昭永	崔炳澤
	文軒淳	金慶弼	金沄培	朴釗用	成富永	李仁雨	鄭泰坤	崔祥旭
부 회 장		金奎虎	金仁駿	朴億植	成二慶	李允佶	鄭兄錫	崔祥海
鄭建容	회 원	金根大	金鍾喆	朴正丘	安久遠	李鍾泰	曹允承	崔成海
鄭相哲	姜大垣	金斗鐵	金柱浩	朴鍾模	安承祐	李鎬範	曹寬承	崔漢炳
尹柄龍	姜東淑	金道泰	金鎮浩	朴洪大	劉潤瑄	李熙文	陳道平	許 澤
	姜珍馨	金汶培	金泰坤	卞英秀	尹錡根	張明洙	陳道哲	許光洌
감 사	權奇男	金祥燁	金劬贊	裴極千	尹孝榮	張在洙	陳永鎬	洪東淳
朴雄鎮	權明世	金成守	盧在亨	裴相漢	尹榮穆	鄭敬圭	千道均	
	權善五	金運培	文校淳	裴鍾權	李吉相	鄭德桓	千山茂	

馬·昌 '99 체육대회 "신바람"

종합우승 홀수기팀·부인들 최우수상 등 휩쓸어

마산·창원지역동창회는 5월 30일 (일) 경남 창원시내 경남도민 사격장에서 '99 가족동반 체육대회를 열고 '용마 한마음'을 재확인했다.

李朱昌지역회장(17회·경창관광 회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에서 동문·가족 2백여명은 홀·짝수팀으로 나눠 '부부 매듭 묶고 달리기' 등 여러 게임과 노래자랑 등을 펼쳐 홀수팀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본부에서는 鄭紹永회장(6회·

정소영치과의원장)을 비롯해 崔得鎬사무국장(11회) 金炳秀총무(22회) 등이 참석, 축하했고 鄭회장은 금일봉을 협찬해 사기를 진작시켰다.

李회장은 대회를 통해 "20세기 마지막 대회에서 분출되는 화합과 결속을 다가올 21세기의 초석으로 삼자"고 말했다.

鄭본부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역동창회의 발전이 본부동창회 발전의 근간"이라며 "조직강화와 함께

어려운 동문들을 도우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홀·짝수 대항 경기는 오전에 △부부 매듭 묶고 달리기 △여자 공굴리기 △남자 스크럼 공 릴레이 등을, 오후에 △남녀 혼성 축구 △줄다리기 △파도타기 △노래자랑 등을 펼쳤다.

특히 노래자랑 등에서 부인들이 최우수상 우수상 감투상을 휩쓸어 이번을 낚았다.

▲단체상 ▷종합우승=홀수기 ▷최다참가상=제13회

▲개인상 ▷최우수상=이문경동문(32회) 부인 ▷우수상=공민배동문(27회) 부인 ▷감투상=황중부동문(17회) 부인 ▷비둘기상=이준동문(15회) 부부 ▷잉꼬상=김영철동문(35회) 부부.



마산·창원지역동창회 가족동반 체육대회에서 선수들이 스크럼 공 릴레이를 준비하고 있다.

제14회 남치대회 대어상 한규환 차지

제14회동기회(회장 노수덕) 가족남치대회가 경조회 주관으로 5월 9일 경남 의령군 정곡면 정곡저수지에서 열렸다.

정삼영회장(고려신경외과의원장)이 주재한 행사에서 19명의 동문·가족들은 친선과 유대를 함께 낚았다. 이날 대어상은 한규환동문(부산정보대 교수), 중량상은 장종길동문, 특별상은 차동일동문 장남 지함군(경남중3년)이 받았다.

일행은 대회 후 봉어매운탕에 정담을 꽃피웠고 푸짐한 선물로 즐거움을 나눴다.



제6회 서울·부산동문들이 단합회를 통해 우정을 나누고 있다(5월 13일 유성온천).

제6회 서울·부산동문들 한자리에 유성온천서 단합회

제6회동기회 서울·부산 합동단합회가 5월 9일(일) 대전 시내 유성온천에서 열렸다.

임경택회장(동아대 전 교수)이 주재한 이날 '만남의 광장'은 반가운 인사들로 한동안 달아 올랐다.

서울에서는 열차편으로 최인갑회장 및 이형주총무와 부산시장을 지낸 최석원동문 등 22명이, 부산에서는 임회장과 정소영본부회장 등 28명이 참석했다. 특히 제주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성수동문이 부산 친구들과 함께 올라와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서울 동문들은 부산에서 준비해온 술과 도식락 대접에 수건까지

선물로 반자 호뭇해 하면서 "부산 최고야!"를 연발했다. 더러는 "싱싱한 생선회도 가져 왔으면 그저 그만이었는데..." 하면서 아쉬움 섞인 농담도 풀어내 한바탕 웃음꽃을 피웠다.

정본부회장은 타계한 친구들의 명복을 빈 후 "인생은 육십"부터라며 "즐겁게 살 것"을 강조했다.

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뛰니뛰니 해도 인생 황혼기에는 친구가 제일이니 자주 만나자"고 말했다.

서울의 이총무는 답사를 통해 "잔칫상을 잘 차려준 부산 친구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는 이같은 모임을 해마다 열자"고 말했다.

제31회 해운대지역회 창립

초대회장 정주영 선임

제31회 동기회(회장 박경수) 해운대지역회 창립총회가 5월 7일 오후 7시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영풍호텔 갈비'에서 열려 정주영동문(반송치과의원장·사진)을 초대회장으로 선출했다.

동기회 활성화를 위해 영도지역회에 이어 두번째로 결성된 이날 총회에는 전체 25명의 회원 중 20명이 참석, 지역동문간의 화합과 결속을 과시했다.



특히 이날 모임의 높은 참석률에 고무된 정초대회장은 기금 2백만원 을 쾌척했다. 정회장은 박세환동문(에들랜드 대표)을 총무로 지명했다.



제16회동기회 수학여행단이 높은 높였으나 기분은 학창시절 '미소년'으로 돌아가 품을 잡고 있다.

제16회 수학여행...청학동·지리산 견학

제16회동기회(회장 洪晶吉) '99 수학여행'이 5월 29~30일 이틀간 하동 청학동~지리산온천~노고단 동반 일정으로 실시됐다.

올해로 열 여섯번째인 수학여행에는 31명의 동문들이 참가했다. 일행은 29일 낮 12시 대성관광버스편으로 부산역광장 앞에서 출발해 하동 청학동 관광과 지리산온천욕을 거쳐

전남 구례시 근교 화엄사 입구 호텔에서 1박을 하며 밤새도록 '추억만들기' 경연을 벌였다.

이들은 다음날 지리산 노고단 등산으로 심신을 재충전시킨 후 함양에 도착, 이곳 축협 조합장으로 신망이 두터운 하주열동문이 배운 한우술갈비파티와 족구대회로 열정을 발산시켰다.

"어려운 동문 돕는데 앞장서"

제15회 새 집행부 상건례 단합회

조규중 '치아건강' 특강

제15회동기회는 5월 20일 오후 7시 부산역 앞 아리랑관광호텔 2층 연회실에서 새 집행부의 상건례를 겸한 단합회를 가졌다.

鄭基文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동문 57명이 참석, 동기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했다(사회 金判烈).

鄭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발로 뛰는 회장이 되겠다"며 "역할분담을 하게 될 4명의 총무와 긴밀히 협조해 조직강화에 힘쓰고 그늘지고 어려운 동문들을 더 보살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단합회는 모처럼 참석한 동문과 몇몇 동문의 근황 소개, 새로 결성된 기우회 金正煥회장의 인사, 99년 동기회 및 동기회관 운영 예산안 3천6백여만원에 대한 추진결의 등으로 진행됐다.

저녁식사 후 '초청특강'에서는 대구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조규중동문이 참석, '우리 나이의 치아건강'이란 주제로 30여분간 특강을 해 자리를 한층 뜻깊게 했다.

조동문은 서울대 치과대를 졸업한 후 모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고 경북대 치대 교수 학장 대학병원 과장 등을 역임했다. 미국 미시간대학 치대와 일본 오사카대학 치대 동방문교수로 활약했다.

바로잡습니다

회보 제308호(99. 5. 8) 2면 광고 '제9회동기회 임원·회원 일동'에서 부회장명단 중 田仁奎는 田仁奎이고, 회원명단 중 金成鏞은 金聲鏞·李大奎는 李大圭이므로 바로 잡습니다. 또 회원명단 중 朱性昊동문이 누락되었기에 추가 합니다.

제17회동기회 집행부 명단

회 장 박가식(우성정형외과 의원장)	김영진 김준연 김지창 문석용 박청홍 서정승 송수용 이건우 이기일 이범열 정연희 최만식 최성호 하영수 황수길	여성열 오태식 옥영관 윤명수 이선형 이성흠 이성훈 이인용 이일영 이재두 이종길 이종혁 이형우 장휘행 전영명 정동길 정해표 조용운 주상한 천용광 현대일
부 회 장 김동수 김백수 김종대 박인사 손성근 송인문 신 종 우기남 윤성욱 이종덕 장정용 전경명 정량부 정해진 정형근 조중언 허진호	이 사 강호일 권경술 김길호 김동조 김병문 김성락 김승현 김시영 김영우 김용구 김정수 김종국 김주영 김준위 김창운 박도원 박영두 박영일 박재구 박종구 박홍식 배민부 서용규 서창석 성윤환 송승구 심문섭 안정의 양성일 양춘길	감 사 윤성욱 문석용
당 연 직 이 사 강주수 김대성 김무부 김상천 김성오		총 무 강주수 전성광

부부동반 65명 종암산 등반

제17회산악회 주관·부곡·영도서 신풀이

제17회동기회(회장 박가식)는 5월 23일 부부동반 종암산 산행대회를 열었다.

17산악회가 주관한 이날 등반은 하영수산악회장이 주재한 가운데 동문·가족 65명이 참석, 4시간을 등반했다. 특히 국회의원인 정형근동문 부부도 자리를 함께 해 행사를 더욱

알차게 해주었다.

일행은 산행을 마친 후 부곡 로얄 호텔에서 온천욕으로 피로를 풀고 단합만찬회에서 우정을 쌓았다.

부산에 돌아온 일부 동문과 부인들은 버스를 타고 영도 대교보쌈집(장휘행동문 운영) 겸 가라오케에서 두 시간에 걸쳐 2부잔치를 벌였다.



금정산 등산에 나선 제31회 동문·가족들이 남문 앞에서 즐거운 표정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금정산 봄철 산행 제31회동기회

제31회동기회는 4월 25일 부산 근교 금정산에서 가족동반 봄철 등산대회를 열고 우정과 건강을 함께 다졌다.

박경수회장이 주재한 이날 산행에는 동문·가족 23명이 참석, 식물원~남문 코스를 택해 하루를 즐겼다.

26회 백양농원서 들놀이 동문·가족 70여명 참석



제26회동기회는 5월 30일 부산 근교 백양농원에서 동문·가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철 들놀이를 열었다.

장경재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서 동문·가족들은 꽃베이스볼로 결속을 다지고 노천회식을 통해 화합을 쌓았다.<사진>

한편동기회 산하 클럽별·지역구별 모임도 활발히 열려 지력을 과시했다.

골프 우승 최윤림

△26골(골프회)=5월 18일 동부산 C.C에서 서클회장배 쟁탈전 개최. 우승 최윤림·준우승 지용섭·메달리스트 박동기.

가지산 등반

△26악(산악회)=5월 16일 가지산

등반. 학심이골에서 하성봉총무가 준비한 삼겹살과 목살, 이근범회장이 특별히 준비한 양주 및 소주를 곁들여 단합회 열고 운문사를 거쳐 부산 도착.

사이아육 월례회

△사이아육(사하구 모임)=5월 12일 부산 사하구 다대포 '야망정'에서 12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 장경재동기회장과 김태년총무가 같이 참석해 지역구 모임의 발전을 위해 귀를 기울임.

다음 모임은 6월 9일 사하구 하단2동 '수레로바다야끼'에서 열릴 예정.

·연락처: 김상현 051-264-2581.

일육골프회 경부친선 부산초청 대회

우승 전정측(서울) 메달리스트 주낙곤(부산)

제16회동기회 산하 일육골프회 경부친선 부산초청대회가 5월 16일(일) 통도컨트리 북코스에서 열려 서울의 전정측동문이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또 부산의 주낙곤동문이 메달리스트, 부산의 박민소동문이 준우승, 서울의 황태우동문이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올해로 열 여덟번째 맞은 이날 대

회는 서울 20명, 부산 20명 등 모두 40명이 참가해 10조로 나뉘어 인·아웃에서 동시출발로 진행됐다.

이날 경부 동문들은 경기 후 통도 C.C 입구 숲길비빔밥 '한우잔치'에서 열린 시상식 및 뒤풀이를 통해 저녁 늦도록 소주잔을 부딪치며 우정을 나눴다. 서울 초청경기는 오는 9월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뉴질랜드에서 온 편지

정인식 총무에게.

경고 28회 김승덕이요. 어제 경남중고동창회보 제307호(99. 4. 9 발행)를 받아보고 너무 반가워서 팩스로 안부부터 전하오. 여기에도 '경남중고동창회'가 있으며 동문들이 자주 만난다오.

인식동문은 개인적으로 지난 97년에 잠깐 사업차 한국에 들렀을 때 구서동 나의 본가 아파트 근처에서 잠깐 만난 기억이 나오. 나는 94년 10월 13년간 재직하던 LG 그룹을 사직하고 곧바로 여기 뉴질랜드(아이들 유학을 핑계삼아)에

와서 약 5년간 정착하고 있다오.

한때 한국에서 사업도 도모하였지만 여의치 않아 여기 뉴질랜드에서 호텔경영학을 다시 공부했다오. 작년에 졸업하고 여기 Auckland에 있는 뉴질랜드 최대의 호텔 Carlton에서 근무하고 있소. 이 호텔에서 올해 APEC 회의가 개최되지요.

아이들은 1남1녀로 현재 17세(여) 13세(남)이며, 본가는 부산 구서동 선경아파트 3차 306동 502호로 어머니가 살고 계시지요. Carlton 호텔 연락처는 64-9-366-

3000(ex 5622).

친구들에게 모두 안부 전해주고, 혹시 호주나 뉴질랜드에 사업 또는 관광차 방문하는 동문이 있으면 꼭 연락해 주시기 바라오.

한 2년 뒤 아이들 공부가 어느 정도 끝나면 귀국하려고 생각하고 있소.

경남중고 제28회 동문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직장도 사업 번창하길 멀리서 기원하오.

뉴질랜드에서 28회 김승덕

P.S

정총무가 쓴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으로서의 <시평>을 읽고 공감했습니다.

여름철의 음식궁합

홍떡

이승하

제28회 이승하의원 원장



봄인가 싶다가 벌써 더위가 시작되고 있다. 울창한 숲과 요란한 매미 울음소리의 구덕산이 눈에 선하다. 그 시절, 우리는 입시에 쪼들리면서도 원형교사를 둘러싼 청량하고 풍부한 산림지기를 들이키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지 않았나 싶다.

여름은 번창하고 수려한 계절이라 천지 음양의 기가 활발하게 교류하여 모든 생물이 열매를 맺는 왕성한 시기이다. 이 때는 잠을 충분히 자고, 해가 긴 낮에는 권태를 느끼지 않도록 하며, 흥분하지 말고 매사에 느긋할 것이다. 육체적으로는 번거로움을 피하도록 하고 스트레스는 발산시켜 울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양생법에 거역하여 가슴을 답답하게 하거나 몸에 울열이 생기게 하면 여름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심장을 상하게 해 핏병이 될 수 있고, 이는 만병의 근원이 된다. 병을 예방하려면 우선 그 마음을 다스리라고 했다.

무더운 날 땀을 많이 흘리고 목이 마

르는, 진액이 빠지는 중에는 물 1천3백cc에 인삼 30g 맥문동 50g 오미자 20g을 넣고 반이 될 때까지(두 시간만 정도) 달여 냉장고에 넣어두고 시원하게 해서 마시면 좋다. 맹벌레 일을 많이 해 지치고 현기증 등 빈혈기가 있을 때는 황기 1백g 당귀 20g을 달여 먹으면 기혈을 보충해주는 좋은 처방이 된다. 확실히 하려면 세밀히 진찰을 받아서 자신의 체질과 증에 맞는 보약을 복용해야 한다.

여름에는 한약을 먹지 않는다는 말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사실 체력 소모가 많은(땀을 따라 혈이 나감) 여름철에 체내의 정혈을 갈무리해 두어야 추운 겨울에 몸을 상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것이다.

난세가 된 후에 선정을 베풀려 하지 말고 미리 정치를 잘하여 난리가 안나도록 해야 하듯이, 중병이 된 후에 고친다고 애쓰지 말고 예방을 하도록 미리 양생법에 맞게 생활해야 한다고 함은 한의학의 정신이다.

인삼·맥문동·오미자 차로 마시면 갈증풀어 맹벌레 지쳐 현기증나면 황기·당귀달여 먹도록

제20회동기회 임원 명단

회장 김대원
부회장 강기철
강송심
김기근
김두세
김영영

감사 김일석
김조동
총무 김무식
이사 강두상
김두환
김세준

김순신
김창홍
김태형
김경영
김영석
김병영
김용

박용호
박재형
박문승
박철성
박영갑
박성
박유이

이실근
이정현
이오장
이정진
이정조

진경일
차상곤
채정철
최병하
최성배
최남준
최영희

10년째 노인·실직자 점심대접



급식을 기다리는 노인들의 정서진 모습.

원에서 소일하는 노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했다.

‘사랑의 집’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점심식사에 초대된 60여명의 노인들은 잠시 의하해하다가 ‘정말 우리 배고픈 노인네들을 위해 사랑을 베푸는 곳이구나’하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감격과 함께 “감사합니다”를 연발했다.

이날 이후 소문이 짝악 퍼졌다. 공원에는 점심시간 무렵이면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늘어난 새 식구로 우동그릇이 모자라 그릇도 새로 사들였다. 초창기 점심손님(?)은 매일 60~80여명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IMF한파가 불어닥쳐 공원에 올라와 시간을 보내는 실직자들이 늘었다. 정동문은 이를 외면할 수 없어 실직자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요즘은 노인들과 실직자들을 합쳐 하루 1백40~1백60여명이 불린다. 이들은 무엇보다 ‘끈끈한 정’에 행복감을 느낀다.

6년째 ‘사랑의 집’ 단골인 박성수노인(68)은 “우동 점심에는 정이 듬뿍 담겨 있어 외로움을 잊게 한다”며 “사랑의 집을 출입한 인연으로 새로 사귀 친구들도 많아 무엇보다 즐겁

다”고 말했다.

‘사랑의 집’은 정동문을 위시해 동기생 서너명과 자원봉사자 2명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아침부터 손길이 바쁘다. 우동을 삶고 국물을 빼내며 반찬과 양념 등을 장만하



‘사랑의 집’ 봉사자들이 노인들과 실직자들에게 점심대접을 하느라 손길이 바쁘다.

하루 1백50여명에 우동 한 그릇씩 동문 서너명·자원봉사자 2명 “큰 힘” 매월 예산 1백50여만원으로...사랑 실천

라 오전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간다. 손님들 중에는 양이 차지않아 두 그릇을 원할 때도 있다. 미안해하지 않도록 얼른 우동을 맡아주기도 한다.

어느 제조업체에서 10년 넘게 종사하다 IMF바람에 일자리를 잃었다는 강태호씨(43)는 “처음에는 노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니 부끄럽더군요. ‘젊은 놈이 어디 갈 데가 없어 이

곳에서 끼니를 채우고 있다’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는 허기를 채우기보다 이곳에 오면 사람사는 정을 맛볼 수 있어 일주일에 한번은 ‘사랑의 집’ 고객(?)이 된다고 말했다.

정동문은 농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재료를 싼값에 사들일 수 있어 하루 1백50여명을 맞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한달에 꼬박꼬박 드는 경비는 1백40만~1백60만원선. 적은 액수가 아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뜻이 없으면 성취시킬 수 없는 일이라서 보람을 느끼고 쾌척하고 있다.

“저의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라고 생각하니 한달 경비가 문제되지 않아요. 좀더 좋은 점심을 대접해 드리지 못해 미안하지요.”

정동문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행복만들기’를 실천하면서도

시중 겸손하다. “친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합심해 쉼 없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직자들이 하루 빨리 새 직장을 얻어 가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샘’에서 퍼올리는 봉사정신, 정동문은 이를 사회의 그늘진 곳마다 다 배풀어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6월 경일학급 시간표 학요회 등 활동 예고

제10회재경동기회는 6월 ‘경일학급 수업시간표’를 최근 발표했다.

이 시간표에 따르면 첫 주에는 1일 강북화요회(12:00 종각역), 4일 테니스대회(14:00 타워호텔 코트), 5일 이현진동문 자녀 혼사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둘째 주에는 8일 안산화요회(14:00 안산중앙역), 셋째 주에는 15일 여의도화요회(07:30 용마초전회), 18일 테니스대회(14:00 타워호텔 코트), 19일 동수회 바둑(14:00 동기회사무실) 등이 각각 열린다.

또 넷째 주에는 20일 사니조아 등산(09:30 양재역 농협앞 출발), 22일 강남화요회(12:00 대청역), 24일 오륙회골프(11:58 자유.CC) 등으로 친선을 다진다.

부부동반 16명 5월초 북경문화탐방

한편 5월에도 동기회 클럽별 활동이 왕성했다. 화요회 경우 4일 강북, 11일 안산, 18일 여의도, 25일 강남회 모임을 가졌다.

특히 김만옥 부부 등 16명으로 구성된 ‘부부동반 북경문화탐방단’이 2~5일까지 중국 만리장성 자금성 이화원 등을 견학, 견문을 넓히고 돌아왔다.

이밖에 12일 용마초전회, 15일 새 보리회, 27일 경록회 골프, 30일 사니조아회와 구산회 합동 산행 등도 흥겹게 열렸다.

행복만들기

부산 중구 대청동 용두산공원의 충무공 이순신장군동상 아래 있는 ‘사랑의 집’은 정상수동문(22회·재일농수산유통 대표), 김기형동문(22회)을 비롯한 동문 몇명이 거느린 노인들과 실직자들에게 매일 점심을 대접하는 곳이다.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한 것은 89년 8월로, 벌써 10년 세월이 흐르고 있다.

‘사랑의 집’ 정상수(22회)

‘사랑의 집’은 매일 점심때만 되면 1백50여명의 노인들과 실직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이들은 저마다 우동 한 그릇씩을 앞에 놓고 풍요로움과 행복감을 느낀다.

토·일요일과 비오는 날만 빼고 문을 열고 있는 이곳은 정동문의 몇명의 동문이 손수 마련한 것. 처음에는 공

제25회동기회 임원 명단

고 문
朴鍾雄 국회의원
林武弘 동양상사 대표
文在寅 변호사
朴鍾贊 제이텍상사 대표
宋永根 비원레포츠 대표
辛聖基 타워무역 대표
吳相憲 부산대학 교수
李水榮 이수영치과의원장
鄭允哲 세일상사 대표
崔東河 진영금속 대표
崔炳壽 대양수산 대표
崔仁德 동부제당 대표
韓憲教 청남건설 대표
徐秉洙 우진서비스 대표
金鐘喆 동서기계 대표
趙鍾珍 삼한기연 대표

金圭珍 우주전자 대표
회 장
康奐哲 동서대 재단사무국장
부 회 장
梁承旭 메리놀병원 정형외과 과장
李明哲 경성대 교수
鄭吉榮 현대상호신용금고 대표
李漢植 부산공간건축연구소 대표
李正仲 한의원장
李相和 상도공업사 대표
林相澤 신세기통신 언제나대리점 대표
諸榮成 제영성내과의원장
成昊出 제주경찰청
李大羽 인성한의원장
金鍾滿 현대자동차 중부영업소장

金銅鎭 울산병원 외과과장
金吉洙 목천화원 대표
盧榮燦 세신실업 대표
張相贊 세광기업 대표
全圭煥 제일투자신탁 해운대지점장
曹昇道 외환은행 주례지점장
楊孟準 김해공항 문화재관리국
權大勇 OA BANK 대표
金正泰 하나은행 서면지점장
이 사
郭光植 효성종합건설 상무
金德佑 태평양감정평가 소장
金大憲 내과의원장
金煥鎬 신경정신과의원장
金鐘佑 부산자모병원 마취과장
金鍾賢 STK 대표

金昌郁 내과의원장
金鍾國 삼공사 상무이사
金九和 남일고등학교 교사
金 鈴 삼화종합건축사 소장
金泰善 구화학교 교감
金炯謹 삼한가유 부산지사장
襄東明 부경대학교 교수
白承翊 연합철강 과장
徐保民 보민약국 대표
孫元根 현대경영 대표
申琪浩 국제화재 부산지점장
全容台 한의원장
鄭鎭浹 대은약국 대표
鄭樹城 태성상사 기획관리실
鄭信培 영신스포츠텐타 대표
丁東雲 유림농원 대표
趙京一 안과의원장

李聖浩 부산대학교 교수
尹辰鎬 광장약국 대표
林昌雲 중앙피부과의원장
太明山 내과의원장
韓榮根 기업은행 김해지점장
咸健柱 남산병원 과장
許 澤 평화치과의원장

감 사
金相守
총 무
玉東薰

광고협찬 안내

어려운 시절 힘들게 견뎌나가고 있는 동문기업을 돕습니다

- 크기 및 금액
8cm×24.5cm(40만원), 8cm×12cm(20만원), 8cm×6cm(10만원)
- 내용:
·업체소개·주요 취급품목·대표자명(사진 포함)
·연락처·기타 알리고 싶은 사항
- 문의사항: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 전화(051)245-7551~2

용마자동차매매상사

신평자동차매매업단지내(14호)



중 고 자동차
매매 전문업체!

안녕하십니까?
본 상사는 다년간 신차영업에서 다진 Know-How로 새차에서 중고차에 이르기 까지 자동차 Total Market입니다. 최상의 서비스로 동문 선배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대표 최규철(37회)
과장 고영민(40회)
과장 최봉재(40회)

부산시 사마구 신평동 370-6
TEL : 051)294-0055
FAX : 051)294-0056

드림키드 큐 부곡지점 개업인사

장난감 임대·판매 및 비디오카메라 임대

- 위치: 부산 금정구 부곡3동 경남한신 A상가 2층(장전동역 옆)
- 연락: 051)516-5265 011-584-7902
- 요금: 장난감 임대 한달 25,000원(회원가입비 10,000원)
비디오카메라임대 일박이일 20,000원 또는 30,000원
3개월이상 회원 혜택 다양



대표 최 명(39회) 올림

신동아화재보험(주) 북부산 공동사무소 개업인사

- 상 품: 운전자보험, 개인연금, 보장성보험, 재물보험 저축성보험, 일반보험, 퇴직연금보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 연 락: 051-811-1739, 015-5975-7313

최 명 올림